"결혼하고 장려금도 받고"

무주 결혼장려금 첫 수혜자 탄생… 김범일씨 부부

무주군은 지난 30일 무주읍에 거주하는 김범일, 하여진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16일 관련 조례가 제정 · 공포된 이래 첫 수혜자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이 전북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군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해서도 군내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지급한다.

부부 당 5백만 원을 3회(1차 혼인관계사실〈4.16. 이후 혼인 신고해야 가능〉 및 주민등록 확인 후 1백만 원, 2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경과 후 2백만 원, 3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경과 후 2백만 원)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남편 김범일 씨(30세, 무주읍)는 "친구한테 듣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막 지급하기 시작한 결혼장려금의 첫 수혜자가 돼서 기쁘다"라며 라고 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31일 현재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을 한 부부는 총 6쌍이며 관련 문의도 잇따라 인구 늘리기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 외에도 무주군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전입세대원 지원(세대원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과 △전입학생(중 · 고등학생 2차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지원하며 부모(or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한 부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와 자녀 모두 군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관내 고등학교 재학) 지원, 전입 세대를 포함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 자녀 이상(만 18세 이하)을 둔 세대에게는 △공공시설(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 곤충박물관)이용 우대증 발급(세대 당 1인 1매 지급), 전입세대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20리터 50장)하는 등의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릿 1만 부를 제작해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군청을 비롯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해 인구정보를 비롯한 시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하며 주소지(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하면 된다. (문의: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지난 30일 무주읍에 거주하는 김범일, 하여진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했다.

"농특산물 생산과 유통체계 바꾸겠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보건의료원 정상화등 5대 현안사업 약속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지난 31일 "농민이 살아야 무주가 산다"며 "농특산물 생산과 유통체계를 바꿔 농민이 잘 사는 무주를 건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식선거운동 첫 날을 맞아 주민 1,5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주군 안성면 안성터미널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황 후보는 "잘 사는 농촌, 높은 경쟁력 있는 무주를 위해서만 21년 동안 밤 낮 없이 뛰었다"고 소개했다.

황 후보는 "경쟁력있는 농산물 품목을 우선 선정, 명품화하여 농민들이 정성껏 가꿔 온 무주 농산특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또 "군민여러분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보건의료원 정상화, 복합문화 공간인 도서관, 소통창구운영,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처할 미래 무주 준비,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현안사업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임기내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후보는 유세장을 찾은 안성면 주민들을 위한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확충과 덕유산 중심 옛 등산로를 복원하고 숲 체험 둘레길과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안성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 지방 선거 압승 위한 출정식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는 지난 31일 장수군 장수읍 로터리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거운동원, 지지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6·13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영숙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이제 장수에서 전북 최초로 여성 군수가 탄생하는 대장정이 시작되었다."며 "여성군수가 되어 넉넉하고 활기찬 부자농촌 건설, 군민이 행복한 문화·관광·체육을 활성화,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과 복지,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장수 구축, 정의로운 소통행정 구현을 실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출정식에 모인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은 이영숙 후보의 압승으로 '기대, 그 이상의 장수' 실현을 결의하고 신명나는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또 청년이 꿈을 꾸는 장수, 농업이 당당한 장수, 어르신이 행복한 장수,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은 장수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영숙 후보는 "장수는 군민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으나 이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행복한 장수, 건강한 장수를 만들고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 무주 지질공원 '지질탐방로 체험' 인기

진안군, 연 중 무휴 · 명인명품관 연계 등 교육장소로 각광

진안군은 진안·무주 지질공원의 지질자원을 홍보하고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질명소 중 하나인 마이산 일대에서 '지질탐방로 체험 행사'를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1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하는 지질탐방로 체험은 마이산의 지질과 생태, 역사·문화 등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타포니(Tafoni)와 마이산 역암 등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 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지질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진안가위 박물관과 명인명품관까지 연계한 관람·체험이 가능해 진안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진안군은 지질탐방로를 체험한 탐방객들에게는 소정의 지질공원 기념품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열한 번째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준비하는 진안·무주 지질공원은 중생대 백악기 인리형 분지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주며 백악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구조 해석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다양한 백악기 퇴적암과 화산암이 나타나고 이에 관련된 아름다운 지형, 지질과 관련된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진안·무주 지질공원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변 초중고학생들과 지질학과 대학생들의 지질교육장소로 활용되면서 각광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무주 지질공원 지질탐방로 체험행사를 지질공원의 모범적인 지질탐방로 대표 장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무주 지질공원 지질탐방로 체험행사는 지질공원 해설사(063-430-2651)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특색있는 마을 조성 관광자원 구축

진안군은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생태관광자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청정관광 진안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1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처음 시행한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사업은 마을 유휴토지와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풍부한 농산촌 어메니티를 조성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활력 저하를 방지를 위해 마을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생태·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백운면 반송리 두원마을을 공모 신청하여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 진입로 가로수 정비와 소정원, 경관숲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구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장수군,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태양광 LED 조명 7개소 추가 6월까지 이설 공사 추진

장수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와 보수사업을 5월 말부터 추진하여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간이버스 승강장 사업은 읍·면 수요조사에 따라 신규설치 3개소, 이설 2개소를 추진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버스대기 공간 부족 및 이설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태양광 LED조명을 7개소에 추가설치하여 늦은시간 버스를 대기하거나 내리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수군은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 및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 추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장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실 · 과, 읍 · 면 사업소 2018 세외수입 담당 직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장수군은 실·과, 읍·면, 사업소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3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세외수입 직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전산교육장에서 지난 30일 실시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직무교육은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절차에 대한 법령이해 및 세외수입 감사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징수되는 세외수입 수납금 처리에 대한 관련법령 안내 및 처리절차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세입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금출납원의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정확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개선 및 경각심 고취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